



내가 걸어온 길

최수영 저

내가 걸어온 길

최수영 저



출판사
조선민중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我所走过的路: 朝鲜文 / 崔秀英著. —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11

ISBN 978-7-5389-1484-9

I. 我… II. 崔… III. 传记文学—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83038 号

书 名/	我所走过的路
著 者/	崔秀英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金声宇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徐 燕
封面设计/	李光吉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 × 960mm 1/16
印 张/	22.75
字 数/	300 千字
版 次/	2007 年 11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1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84-9 (民文)
定 价/	30.00 元

머리글

어느 철인이 말했던가, 우리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인생은 벌써 반이 허비된다고.

어느덧 내 나이 예순이 되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아닌가! 예순 나이의 길목에서 자신을 돌아보기에 앞서 나는 내가 너무 멀리 와있지 않나싶다. 그러면서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때 이르게 눈물이 난다. 비록 역경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득히 흘러간듯한 그 과거가 너무나도 아쉽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일찍 어릴 적에 가정의 기둥인 아버님을 여의고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린 두 동생을 거느리며 맏이 아닌 “맏이”로 간난신고를 겪어왔다. 더구나 나로서는 “가정성분이 나쁘다”는 이 어쩔수 없는 운명의 울가미를 목에 걸고 사회와 인생간의 대결에서 수모 받고 따돌림 당하면서도 결코 약자로 살지 않으려고 “눈물과 땀”으로 모지름을 써왔다. 그때문에 오늘 몸에 남은것은 치명적인 질병뿐인것 같아 때로 고민하며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분투해왔는가?”고 스스로 자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따금 후회할 때도 있으나 결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헛되게 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남을 해치는 일과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남을 돕는것을 내 인생의 락으로 삼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것이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것 같다. 그렇다. 나이의 본질은 바로 지성의 성숙이 아닌가!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지만 이제 자신의 나이에 따라 축적한 경험과 의의를 차분한 마음으로 갈무리해보고싶다. 즉 인생의 고함을 많이 겪은 뒤의 침착한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고싶다는것이 이 시점에 선 나의 마음이다.

나는 작가가 되려는 꿈은 없었으나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나날들만은 차근차근 기억해두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래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공개하는 이 글을 통해 력사적인 토지개혁으로부터 오늘의 시장경제체제개혁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사회발전의 운행속에서 특히는 거둬되는 정치운동가운데서 객관적인 사회환경의 지배로 하여 얹혀진,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의 다각적인 인간관계와 정신면모를 여실히 알게 될것이다.

나의 이 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두터운 관심을 나타낼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의 어떤 내용을 두고 나를 조소(嘲笑)할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이 나의 글을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진솔하게 적고싶다.

진실은 나의 글의 생명이다. 때문에 나는 나의 이 글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이런저런 삶의 현장을 적라라하게 반영하려

고 애썼다. 특히 지금까지 나의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똑똑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헛소문도 많았고 당치 않는 추측도 많았기에 이런것을 똑바로 밝혀 진실을 알려주고 정확히 시비를 가르고싶다. 그러나 이 글은 그 누구에 대한 항변도 아니며 질책도 아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것이다.

나는 이 글이 자식들을 위해 헌신을 한 부친님의 령전에 바치는 제문이 되고 특히 대동란시기 인간이하의 학대와 수모를 받은 나의 어머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문이 되었으면싶다.

개혁개방으로 좋은 세월이 되었지만 오래 앉아계시지 못하고 너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자신의 불효를 속죄하고싶다.

나는 또한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힘겨운 로정과 성공의 비결 및 그 과정에 있는 령훈과 육체의 고통을 숨김없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여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 공평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자식들의 오늘의 생활이 부모들이 평생동안 분투한 결과임을 소중히 기억하기 바란다.

많은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이 한권의 책이 그들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좋은 유산이 아닐가싶다. 혹시 나의 아들과 딸이 조선글과 조선말에 서툴러 어떤 대목에 가서 나의 진정한 의도를 리해하는데 지장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또한 부모의 의도를 터득하기 위해 조선글과 조선말 공부에 더 열심히할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나는 또한 이 글을 통해 주재님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조선족농민이 개혁개방시기를 맞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여 무역인, 경제인으로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어

우리 조선족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체나름대로 감수하고 평가하고 교훈으로 삼아 중국이라는 이 광활한 경제무대에서 자신의 앞길을 탄탄히 다져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

워낙 이 인생자서전은 내가 환갑을 맞으면서 인생 총화로 자신을 정리해본것이다. 그때는 위병이 엄중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었기때문에 총망히 정리하여 고향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나누어주어 보게 하였는데 모두들 좋다는 평가를 해주어 속으로 대단히 감사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책을 내면서 전에 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내용도 좀더 충실히 하였다. 혹룡강조선민족출판사 편집선생님들도 이 자서전의 진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과정에 나의 습관 용어며 사투리 같은것까지도 될수 있는한 보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마치고나니 책 한권을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책 한권 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권의 책속에 저자와 편집의 얼마만한 심혈이 들어있겠는가를 조금이나마 리해하게 되니 나로서도 책이 더없이 소중히 여겨진다.

끝으로 비록 많은 성의를 기울였다고는 하나 나의 이 책에는 부족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독자들의 편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이 한권의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계시가 되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더없이 만족하겠다.

2007 년 1 월 심양에서

저자 최수영



▲나의 선똥 생일과 은혼기념파티(1997년 5월1일)



▲수진동생의 선똥 생일을 기념하여(2000년 5월 1일)



▲수진의 원뿔 생일날 우리 형제부부가 함께



▲아들 성길이 영국 런던 국제회계학원로부터 “국제회계사” 자격 획득



▲아들 성길이의 결혼식 기념사진(2004년 9월 13일)



▲딸 성화의 결혼식 기념사진(2004년 10월 31일)



▲모아산을 떠나면서 공업반 정도들과 함께



▲심양에서 대외무역을 하면서 조선 손님들과 함께



▲조선 묘향산에서 회사원들과 함께



▲누님의 환갑잔치날을 기념하여



▲심양에서 고향 여성들 모임(앞줄 우로 세번째가 안해 동숙임)



▲고향 동산에 모신 부모님묘소에 새로 비석을 세우고

차 례

머리글/1

제1부 내 인생의 고행길—동명에서

제1장 내 인생의 첫걸음—부모님으로부터/3

제2장 소년시절 이야기/22

제3장 어머니의 심려를 덜어드리려/50

제4장 어릴 때부터 “돈벌이” 꿈을/56

제5장 한맺힌 고중입학통지서/60

제6장 절망을 딛고서/67

제7장 대동란의 풍파/72

제8장 곡절많은 나의 혼인/96

제9장 잘살려고 안간힘/108

제10장 동생 수진의의 결혼/113

제2부 내 인생이 바뀐 길

제1장 내 인생의 전환/119

제2장 기쁨 넘친 어머니의 환갑잔치/123

제3장 승급/126

제4장 불효자는 읍니다/129

제5장 령으로부터 시작/138

제6장 고향동산에 우뚝 세운 부모님 비석/153

제7장 심양지사로 가고저/162

제8장 잘 있거라, 모아산아/168

제3부 내 인생의 고개길—심양에서

제1장 다시 새롭게 시작/175

제2장 시련속에 진행되는 대외무역/180

제3장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207

제4장 지울수 없는 고향의 정/226

제5장 나의 선듯 생일과 은혼식/239

제6장 처가를 도와/243

제7장 형제의 정과 한/266

제8장 힘겨운 나의 돈벌이/310

제9장 뒤늦게 깨우친 “1과 0의 관계”/325

제10장 마침표 없는 지평을 열며/341

[부록]

값진 인생의 기록/353

제 1 부

내 인생의 고행길
— 동명에서

